

물·사람·기차 함께 흐르는 길...동화속 풍경처럼 정겨워라

뒀 올리는 江 동서통합지대
화합의 江 섬진강
12 길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섬진강 일대의 아름다운 길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곡성 두계리 마을 인근의 섬진강 풍경.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청 제공>

■ 섬진강 자전거길



섬진강은 느리게 걸을수록 아름다워지는 곳이다. 섬진강은 정지된 시간처럼 더디게 흘러간다. 거센 물결도 없고, 강물도 낮아 한참 들여다봐도 다급해지지 않는 강이다. 누구네 집 창고에서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하얗게 바라볼 수 있는 강이 섬진강이다. '자연스러움'을 거슬러 흐르지도 않는다. 순창 장구목에서는 길을 막는 크고 작은 돌을 피해 에둘러 흐르고, 하동에서는 작은 모래를 알처럼 품고 흘러간다. 광양 매화마을의 흥매가 하늘거리며 장독대로 떨어지듯, 초를 다투는 현대사회에서 한 발짝 비켜 서 있는 곳이 섬진강이다.

또한 섬진강은 무수한 길을 품고 있다. 강변을 따라 사철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길이 길손을 반기는 곳이다. 정부는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면서 섬진강의 길에 주목하고 있다. 섬진강만의 '느림의 미학'은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강·바다 연결 '한섬지 실크로드' 운영 전북 임실~광양 배알도 148km 자전거길 곡성 기차마을·최참판 맥 등 볼거리 풍부 남원시, 요천강 100리 길에 힐링숲 조성

그림을 운영하는 5곳의 국립공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산, 강, 바다가 어우러진 길=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공원 사무소는 24일 "한려해상공원, 섬진강, 지리산을 잇는 '한섬지 천리길 실크로드' 탐방 프로그램을 지난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호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려해상-섬진강-지리산권 녹색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 탐방 프로그램에는 한려해상권 2곳, 지리산권 3곳의 국립공원사무소가 참여한다. 지리산과 섬진강 일대의 둘레길과 한려해상의 길을 연결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려해상, 섬진강, 지리산의 첫 자를 따 '한섬지 실크로드'라고 부른다.

지리산 둘레길, 섬진강길, 남해 바래길, 이순신길, 바다백리길 등을 연결함으로써 산, 강, 바다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례 지리산 둘레길(산수유길)에서 시작되며 구례, 하동, 산청, 사천, 남해, 통영 등지의 국립공원 둘레길이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희망하는 날짜 2주일 전까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하는 5곳의 국립공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은빛 섬진강물에는 자전거가 제격=전북 임실 생활체육공원에서 광양 배알도 해수욕장까지 섬진강을 따라 148km에 이르는 자전거길이 놓여 있다. 기존에 조성돼 있던 자전거길 46km 구간엔 102km를 연결한 섬진강 자전거길은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의 생가가 있는 진피마을, 순창의 장군목과 향가유원지, 황희 정승이 유배돼 산수를 즐기던 남원의 광한루,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 구례의 빛나무 터널을 지나게 된다.

이어 원호·도선·진각·의상 등 4명의 고승이 수도한 구례 사암암, 10만 그루에 달하는 매화나무가 있는 광양 매화마을 등도 이 구간에 걸쳐 있다.

코스별로는 1코스(임실 섬진강댐~순창 구미교) 24km, 2코스(구미교~곡성 옛 금곡교) 36km, 3코스(옛 금곡교~곡성 압록유원지) 25km, 4코스(압록유원지~구례 남도대교) 32km, 5코스(남도대교~광양 배알도 해수욕장) 37km 등이다.

이 자전거길은 이른 봄, 노란 산수유와 하얀 매화꽃이 피고, 주변에 구례 노고단과 왕시루봉, 곡성 기차마을, 광양 매실농원, 하동 화계장터와 최참판택 등 볼거리도 많다.

곳곳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임실군 덕치면 섬진강 휴게소 자전거길 인증센터(20대)와 진메마을 장산회관(10대)에서 자전거를 빌려준다. 대여료는 1시간에 3000원이다. 섬진강 기차 종착역인 곡성 가정역 주변에도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 곡성청소년야영장, 일반 대여소 등에서 빌릴 수 있다.

◇몸과 마음을 행기는 길=남원시는 장수군계(산동)~전남도 곡성 경계(금지면)로 이어지는 섬진강의 찻길(발원지)인 요천강 100리 길에 생태숲을 조성한다.

남원 요천강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담겨 있는 관광투어 앞을 가로지르는 찻길로 봉화산 지리터 골짜기부터 곡성군과 경계를 이루는 섬진강과 합쳐지는 강줄기이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0억원을 들여 고향을 상징하는 살구나무를 비롯해 화목 교목류 4만그루, 관목류 100만 그루, 야생화, 허브류 등을 식재하고 텃밭 10여 개소를 설치하는 등 힐링생태숲을 조성키로 했다.

또 곡성군 고달면 침곡역에서 출발해 압록오토캠핑장까지 총 9.6km 구간의 길도 빼놓을 수 없는 섬진강 길 중 하나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철로길과 섬진강의 물살을 직접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강길 구간이 나란히 조성돼 있다.

지난 1999년 폐선 된 구간 중 가정에서 압록역 구간 중 2.1km의 기차길을 걷는 구간, 별천지 보호수에서 압록 오토캠핑장까지 강길 구간(2.4km)도 아름다운 곳이다. 주변의 흙길, 돌길, 강변의 대나무 숲을 통과하면서 이따금 섬진강의 물고기들이 뛰어오르는 것도 볼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